

광주 첨단3지구 시산업 육성 탄력 받나

중앙도시계획위, 오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심의 정부 'AI 강국 비전 제시' 속 이용섭 시장 등 총력 대응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의 근거지가 될 첨단 3지구 개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이용섭 광주시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심의 현장을 찾아 총력 대응에 나선다.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AI 산업을 적기에 육성하

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을 공영 개발하겠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다. 개발 사업 대상지는 361만6800여㎡로 이 가운데 85.6%인 309만5900여㎡가 그린벨트다. 광주시는 이곳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영 개발 방식에 따라 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61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오는 2024년까지 첨단 3지구에 국비 2843억원, 시비 812억원, 민간자본 406억원을 투입해 AI 기반시설 등을 갖춘 산단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AI 산업 뿐 아니라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의료용 생체소재 부품산업 육성 등에도 활용한다. 'AI 강국' 구상을 밝힌 정부 기조 등 우호적 환경을 토대로 광주시는 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심의에서 부결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사업 추진에는 잠시나마 공백이 불가피하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통상 매월 있지만, 연초 1~2개월은 건너뛰기도 해 3개월가량 재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AI 집적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

조리 안유성 제과·제빵 마옥천 자동차정비 유재용 건축 임종철 공예 남영숙

'2019년 광주 명장' 5명 선정

광주시는 18일 '2019년 광주 명장' 5명을 선정·공고했다. 차량·철도(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유재용씨, 건축(창호 시공) 분야에서 임종철씨가 선정됐다. 공예(화훼 장식)에서는 남영숙씨, 조리(요리)에서는 안유성씨가 뽑혔다. 제과·제빵분야에서는 마옥천씨가 선정됐다.

명장(名匠)에게는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증서 수여식은 30일 열린다.

광주시는 2013년 도입한 '공예 명장' 제도를 37개 분야, 97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명장을 통합해 선발·지원하는 '광주 명장' 조례를 올해 5월 제정했다.

특정 분야와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광주 내 주민등록 기간 3년 이상, 관내 기업체 3년 이상 종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서류심사, 전문가 현장 심사, 시민 사전공개, 명장심의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광주시는 광주 최고의 명장 선발이라는 점을 고려해 5명 이내를 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실사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을 했다. 도덕성 검증 위해 최종면접심사 대상을 시민에게 사전공개해 의견을 들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 해제~영광 염산 '칠산대교' 개통 무안 해제 송석리와 영광 염산 옥실리를 잇는 국도77호선 칠산대교 개통식이 18일 영광 칠산터널 광장에서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나운수 함평군수 권한대행, 김규현 익산국도관리청장 등 참석자들이 준공알림버튼을 누르고 있다.

2033년 광주인구 140만명 붐괴

통계청, 올해 광주 149만4000명·전남 177만3000명

2033년이면 광주 인구 140만명이 붐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인구 수는 광주 149만4000명·전남 17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광주 인구는 혁신도시 이전 효과 등으로 지난 2015년 150만6000명을 넘어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며 지난 2017년에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14년 뒤인 2033년에는 광주 인구가 139만8000명으로, 140만선을 밑돌 것으로 통계 당국은 내다봤다.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지역은 지난 2016년 179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선

을 그리다 오는 2035년 170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광주의 경우 올해 73.5%에서 2047년 53.4%로, 전남의 경우 올해 65.6%에서 2047년 45.3%로 각각 20% 포인트가량 감소한다. 특히 2047년 전남의 생산인구 구성비(45.3%)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은 광주의 경우 올해 12.9%에서 2047년 36.6%로 3배가량 늘고, 전남은 올해 22.3%에서 2047년 46.8%로 2배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전남지역 고령인구 증가세는 지속된다. 광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오는 2028년 진입할 예정이며, 전남은 2012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광주는 올해 13.6%에서 2047년 10.0%로, 전남은 올해 12.0%에서 2047년 7.8%로 각각 줄어든다.

고령화에 따른 총 부양비는 오는 2047년 2배 넘게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피부양인구는 광주지역은 2019년 36.1명에서 오는 2047년 87.4명으로 늘고, 같은 기간 전남은 52.4명에서 120.6명으로 급증한다. 이때가 되면 전남은 생산인구 1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광주는 3만1000명이, 전남은 5만4000명이 각각 순유출됐다. 2047년 기대수명은 광주의 경우 남성 85.4세, 여성 88.8세, 전남의 경우 남성 84.9세, 여성은 89.8세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순천~광양~하동 구간 40분 이상 단축

광양 대체 우회도로 개통...여수 돌산~우두 확장 국도도

국도 2호선 광양 대체 우회도로 모든 구간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순천~광양~하동 구간이 40분 이상 단축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국도 2호선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미개통 구간인 중군-진정 건설공사가 마무리돼 19일 오후 6시부터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군-진정은 그동안 정체가 심했던 광양시가지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총 29.4km 중 마지막 7.8km 구간이다. 앞서 월전-세풍(2011년 개통), 진상-하동(2017년 개통), 세풍-중군(2019년 3월 개통) 구간은 개통됐다. 마지막 중군-진정 구간이 개통되면 순천에서 광양을 거쳐 하동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는데 기존 64분에서 24분으로, 40

분 이상 단축돼 전남과 경남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형이 구불구불하고 도로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여수시내에서 돌산을 오가는 국도 17호선 돌산~우두 도로 확장공사도 19일 개통된다. 이는 돌산읍 신북리에서 우두리에 이르는 16.78km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 착공했으며, 총 937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 개통으로 돌산도 등 여수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현 익산국도청장은 "광양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여수 돌산~우두 도로 개통이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전남 예타면제사업 지역건설증기 참여 가능

서남해안관광벨트·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등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도교,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등 서남해안관광벨트사업, 목포 대양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등에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8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협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 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밝혔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부처에 건의 서한문을 직접 써서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하는 등 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협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 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밝혔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솔라시도 獨 프리이전설 참여...보성그룹과 MOU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인 솔라시도 구성지구 외국기업 참여로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성그룹은 최근 독일의 프리이전설그룹과 투자협약각서(MOA)를 체결하고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양측은 MOA 체결을 계기로 솔라시도 구성지구 내 독일식 건축 시범단지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융복합 에너지 플러스 건물인 '그린스마트' 건립과 도시개발 공

모 사업 등에도 공동 참여키로 했다.

프리이전설은 독일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생태 공간인 리젤펠트 마을의 기획·설계 시공을 맡는 등 생태적 도시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그룹측은 "프리이전설그룹의 협력을 통해 솔라시도 개발 등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품양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여수상공회의소 공고 제2019-05호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여수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나. 위치: 전남 여수시 봉계동 737 외 4필지
다. 면적: 대지면적 9,375.00㎡ / 건축면적 1,388.02㎡ / 건축연면적 4,290.49㎡
라. 총수 및 주용도: 4층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2. 입찰일정

구분	입찰등록마감	현장설명회	공개입찰 및 개찰
장소	여수상공회의소 총무부	여수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여수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일시	2019. 12. 24(화) 17:00	2019. 12. 27(금) 11:00	2020. 1. 6(월) 14:00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여수, 순천, 광양지역내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서류를 충족한 업체에 한함.
나. 입찰공고일 기준 2019년 대한건설협회 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20억원 이상 평가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신용평가기관 NICE평가정보(주) 기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인 업체.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적정가입찰제

5.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본 회의소 회관신축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기타 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Tel. 061-641-4001) 또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yeosucci.korcham.net)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8.
여수상공회의소